성 프란치스코와 1223 년의 회칙

브렛 토만, OFS

올해 2023 년, 프란치스칸 가족은 후기 회칙의 승인 800 주년을 기념할 것입니다. 승인된 회칙 또는 1223 년 회칙으로도 알려진 이 회칙에 대한 교황의 승인은 성 프란치스코의 길고 어려운 여정의 정점을 표시합니다. 그의 여정은 재속 프란치스칸 회칙이라는 다른 회칙에 서약한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칙은 특정한 형태의 수도 생활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부름을 느낄 때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느님께 충실하고 장상과 교회에 순종하면서 기도와 분별력을 통해 계발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회칙의 시작은 1208 년 2 월 24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그는 복음의 가난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제가 성 마태 복음을 읽었을 때 그는 천사의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구리를 소유하지 마십시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10:9-10).

프란치스코는 "이것이 내가 온 힘을 다해 하고 싶은 일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동료들이 쓴 전기, 8 장. 25* 참조). 그가 해야 할 일을 깨닫자 그의 마음은 불타 올랐습니다. 완전하고 근본적인 가난이 그의 카리스마였습니다.

만일 성 프란치스코가 가난을 포용하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3 세기의 환경과 카톨릭 교회의 정경 구조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다른 수도사들의 인간성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천사들이 동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회에 동참했습니다.

머레이 보도, OFM 은 이 이분법을 훌륭하게 시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그의 걸작인 성 프란치스코 전기의 제목인 *여정과 꿈*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소개합니다. "꿈"은 가난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부르심입니다. "여정"은 그가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 무수한 도전에 대처하면서 직면한 투쟁입니다. 그 여정은 15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의 부름을 받은 직후 아시시의 다른 사람들이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생 공동체를 안내하는 지침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본질적으로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직접 인용했습니다.. "네가 온전하려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요 와서 나를 따르라"(마태복음 19:21).

이 구절은 프란치스코의 첫 동료인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가 그를 따를것이라고 요청했을 때 알려졌습니다. 산 니콜로 교회에서 두 사람은 무작위로 성경을 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두 번 더 펴서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누가복음 9:3),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누가복음 9 장)라고 읽었습니다. :23). (*성 프란치스코의 작은 꽃*, 2 장 참조)

그 후, 첼라노의 토마스에 따르면, "베르나르도는 이 조언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즉시 이 모든 일을 수행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친 근심에서 벗어나 무한하신 선을 향하여 프란치스코를 안내자로 모시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혼의 욕망에 대한 기억, 제 2 의 생애*, X 장, 15.)

프란치스코에게 12 명의 추종자가 있었을 때, 그는 그의 신생 공동체에 더 많은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는 최초 회칙 또는 원초 회칙으로 알려진 것을 작성하고 교황 인노센트 3 세의 승인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첼라노의 토마스는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주 하느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수를 늘리시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과 현재와 미래의 형제들을 위해 간단하고 짧은 말로 생활 양식과 회칙을 썼습니다. 그는 주로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사용했으며 오직 그 완전함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다른 것들을 삽입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첫 생애*, 제 13 장, 32).

이 초기 회칙은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와 퀸타발레의 베르나르도에게 계시된 성경 구절, 복음적 권고에 따라 살겠다는 약속, 가난에 대한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어집니다. 확실한 것은 프란치스코가 본질적으로 서구의 아우구스티누스나 베네딕토회였던 기존의 수도원 규칙 중 어느 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형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복음적 삶에 따라 자신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 세는 약간의 망설임 없이는 아니지만 프란치스코의 회칙을 받아들였습니다. 1209 년 4 월 16 일은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구성되고 교황이 원초 회칙을 구두로 승인한 날짜입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프란치스코는 모범으로 회를 이끌었습니다. 수도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 때문에 그렇게 했으며, 프란치스칸 생활 방식은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1 년에 두 번, 수사들은 총회장(chapters)이라고 불리게 된 아시시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회칙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권고에 따른 것처럼 보이는 대로 훈계와 시정과 지시를 내리곤 했습니다." (세 동료의 전설, 14 장, 57 참조)

시간이 흐르면서 프란체스코회 모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단의 수가 늘어나고 알려진 세계가 속주로 나뉘면서 프란치스코를 만난 적도 없고 아시시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칸 생활 방식에 대해 독특한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1219 년부터 2020 년까지 성지에서 떨어져 있을 때, 교단은 설립자의 비전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란치스코는 훨씬 더 포괄적인 삶의 형태를 공식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3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문서에서 그는 초기 회칙 또는 1221 의 회칙으로도 알려진 두 번째 회칙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 규정은 모호했고, 충분한 법적 용어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프란치스코는 다시 한 번 다른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223 년에 그는 레오 형제와 보니조 형제와 함께 폰테 콜롬보로 알려진 리에티 시 근처의 은둔지로 갔다. 40 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그는 최종 회칙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그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더 널리 퍼져 있는 복음서 구절 모음에서 취한 회칙이 확증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짧은 형태로 압축하기 위해 두 동료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어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전이 지시했다. 그곳에서 그는 빵과 물만으로 만족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 성령이 그에게 제안한 대로 규칙을 받아 적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 규칙을 지키도록 열렬히 권고하면서,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거기에 둔 것은 자신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축복받은 프란치스코의 생애, 위대한 전설, 4 장)

교황 호노리우스 3 세는 1223 년 11 월 29 일 교황 칙서인 Solet annuere 에서 이 규칙을 승인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1223 의 규칙은 기술적이거나 율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다른 전통적인 규칙과 달랐기 때문에 독특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성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수도회에 대해 가졌던 비전을 완전히 포함했으며, 그는 그것에 열렬히 헌신했습니다. 1226 년에 그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 형제들에게 순명을 통해 회칙이나 "그들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회칙과 이 말씀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말하고 쓰도록 나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은 그것을 단순하고 순결하게 이해하고 끝까지 거룩한 행위로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의 축복으로, 땅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축복으로 지극히 성령이신 보혜사와 하늘의 모든 권능과 성도. (38-40)

성서를 쓴 직후에 성 프란치스코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젊었을 때 받은 은사에 충실한 줄 알고 평안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길을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끈기와 인내를 통해 그의 '꿈'은 '여정'에서 직면한 장애물과 도전보다 더 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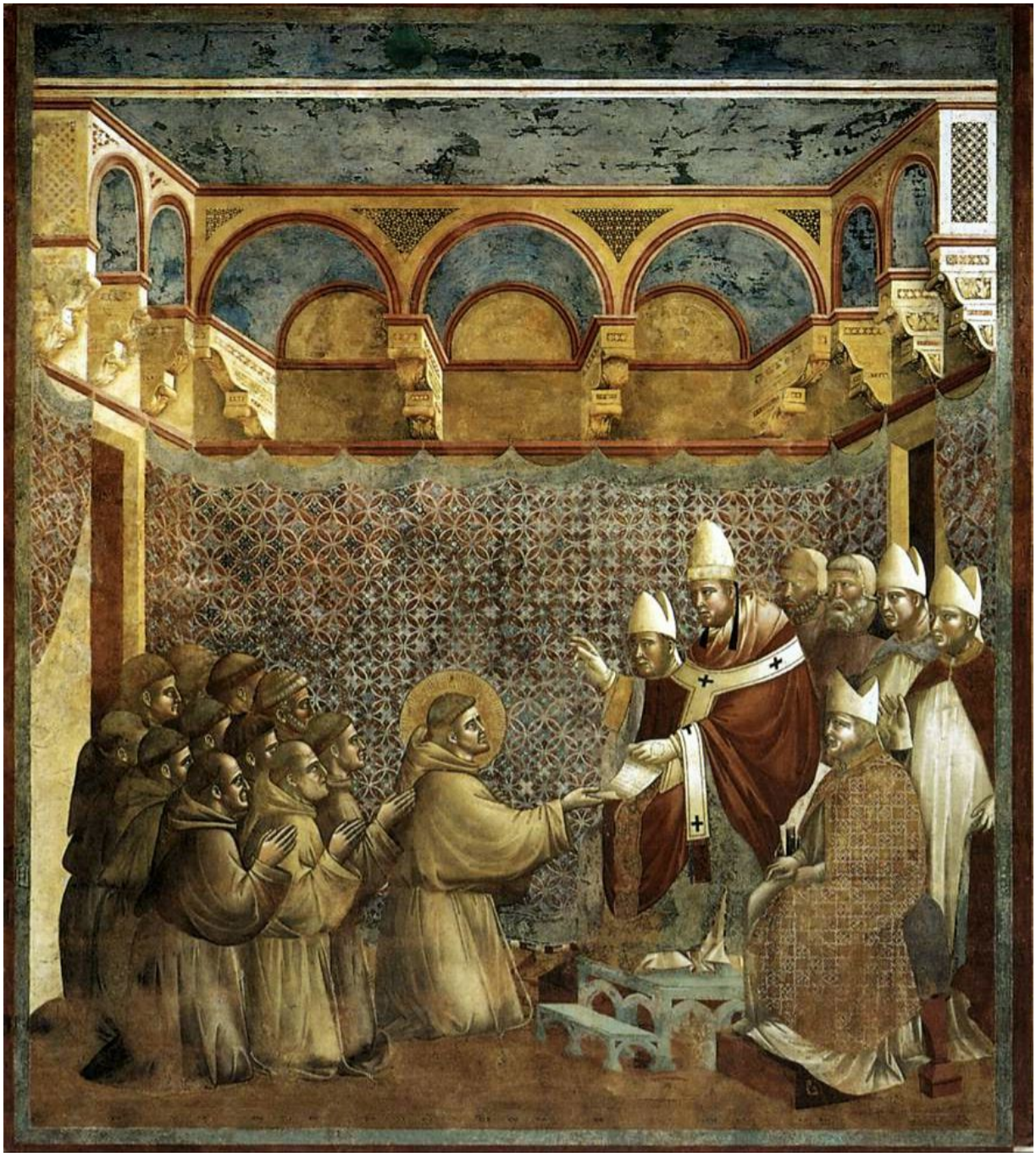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소명과 규칙에 대한 헌신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소명을 생각할 때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한 소명을 언제 어떻게 들었습니까?
- "꿈"은 어땠습니까?
- 여러분은 자신의 부름에 어떻게 충실했습니까?
-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 어려움은 어땠습니까?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알고 행했다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용 사진:



Caption:
"*The Confirmation of the Rule*" by Giotto, 1297-1300, Assisi. (Public Domain)

Caption:
The Hermitage of Fonte Colombo where St. Francis wrote the Rule of 1223 (MeryCri | CC BY-SA 4.0)